

초고령 전남 감염병 환자 증가 심상찮다

건강 취약계층 노인 많아

작년 1~4군 환자 7775명

3년만에 2배 이상 늘어

불거리 10배, 수도 5배 급증

전남도의 감염병 환자가 최근 5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초고령화 현상으로 건강 취약계층이 많은 전남에서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694명이었던 제1~4군 감염병 환자는, 2013년 5543명, 2014년 7176명, 2015년 777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파 속도는 떨어지지만 집단 발생할 수 있는 제1군감염병에는 2012년 46명이, 2015년에는 97명이 감염됐다. 장티푸스 감염자는 3명에서 13명으로, A형 간염 감염자는 29명에서 70명이 됐다. 무서운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나는 감염병은 제2군감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도다. 이들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변이 등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행성이하선염(불거리) 감염자는 131명에서 10배가 넘는 1340명으로, 554명이던 수도 감염자는 5배가 넘는 2378명으로 각각 급증했다. 제2군 감

염병인 B형 감염은 243명에서 4명, 백일해는 71명에서 9명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인 제3군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이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드기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2012년 635명이, 2015년에는 1823명이 감염됐다. 성홍열(세균성 인후염)은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13명, 렙토스피라증은 1명에서 22명,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은 26명에서 61명으로 각각 환자가 늘었다. 뎅기열 등 국내에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인 제4군감염병은 2012년 감염자가 1명도 없었지만 2013년 10명, 2014년 6명, 2015년 17명으로 증

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감염병마다 유행주기가 있는데다 공기오염, 이상기온, 면역력 약화 등이 특정 감염병의 유행을 촉발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지 못했다”며 “다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집단시설에 들어가거나 외국여행을 갈 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6월말까지 감염병 환자는 모두 3037명으로, 제1군감염병 189명, 제2군감염병 1607명, 제3군감염병 1233명, 제4군감염병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내년 대선 야권통합·연립정부 가능 야권, 죽기 살기로 정권교체 나서야”

정세균 국회의장…“보수정권 10년 무능 기 막혀”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립정부론’에 대해 “가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5면) 정 의장은 지난 2일 오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야의 일대일 구도가 대선 승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호남 민심의 절실한 요구는 ‘정권 교체’라며 “야권이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대응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낙관론과 관련, 정 의장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새누리당의 선거 재주가 능란하기 때문에 야권이 죽기 살기로 해야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보수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비판한 뒤, 경제 문제와 관련 “정부의 무능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도 했다.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염치고 체면이고 없이 저지른다”며 “호남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총선에서의 터민주의 호남 참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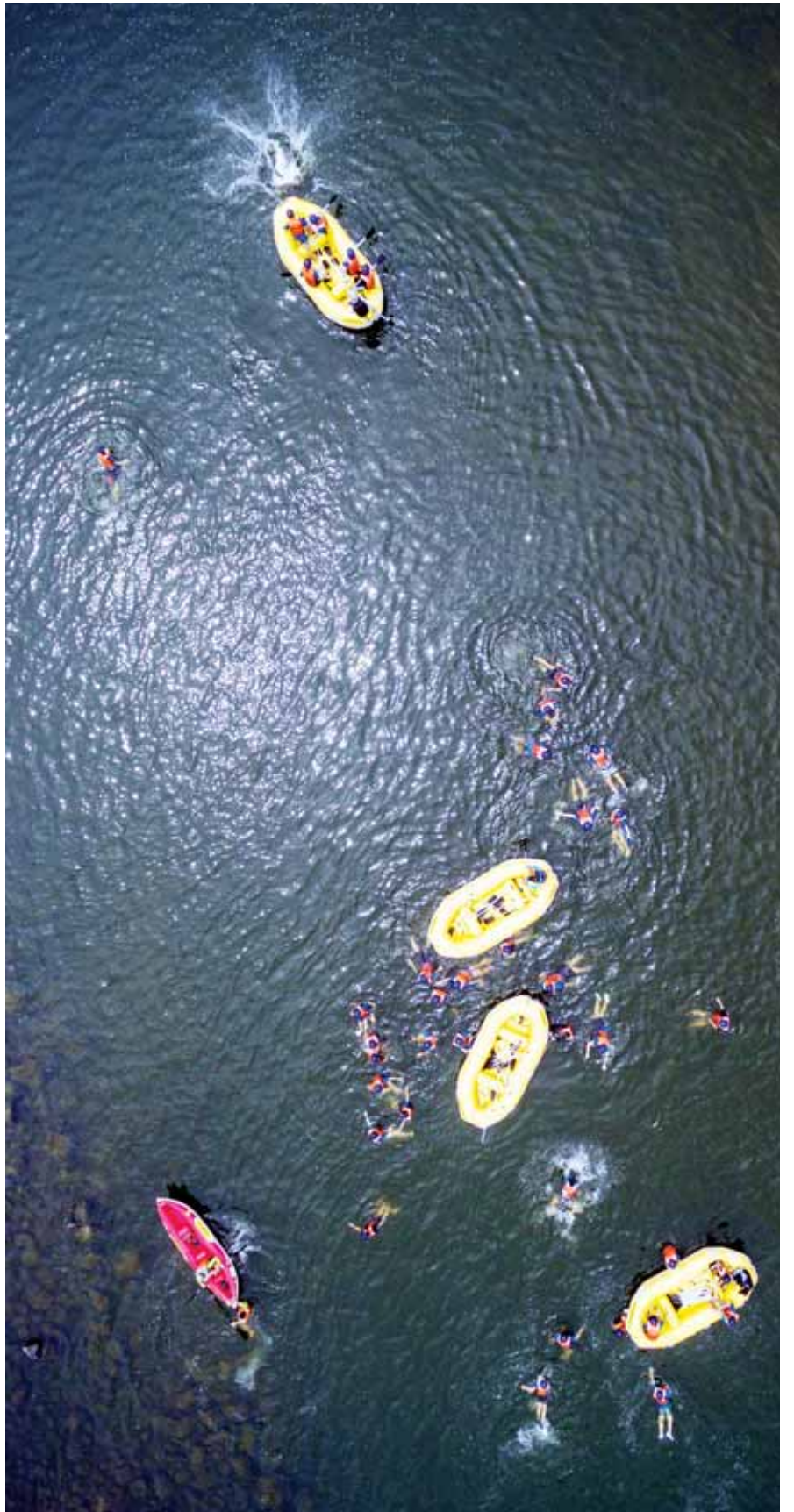
대해서는 “대가 없는 ‘무임승차’는 더 이상 안 된다”며 “터민주는 과거에 지불하지 못한 차비까지 합쳐서 지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의 인재를 잘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형 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도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개헌 이슈를 피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률 제정 3년 4개월만에 광주 군공항 이전 첫 걸음

국방부 위원 21명 현지실사
부지활용 등 3개항 평가
9월중 타당성 최종 결과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를 위한 현지실사가 3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타당성 평가를 위한 현지실사는 군 공항 이전 여부를 사실상 평가하는 첫 관문인 만큼 조미의 관심사다. 지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년 4개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법시민주진위원회(2013년 10월)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뒤 2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침 발표 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어서 이번 평가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민간 평가위원들은 이날 광주 군공항 등에서 현지평가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실시 첫날인 이날 군공항 기지 시설을 둘러본 뒤 광주시 이전 건의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분과별 토의를 했다. 이어 4일에는

분과 위원별 평가서를 작성하고 종합 회의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공항 이전을 주관하는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 최종 결과는 9월께 있을 예정이다. 타당성 평가는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넘어야 ‘적정’ 평가를 받게 되며, 비로소 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800점 이하면 이전건의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을 거쳐 다시 제출해야 해, 군 공항 이전 작업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평가항목은 현 공항부지 활용방안(600점), 새로운 군 공항 이전방안(200점), 이전할 주변 지역 지원방안(200점)이다. 이 가운데 현 공항부지 활용방안의 점수가 높은 것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1차 관건인 재원 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현 부지가 도심 역세권에다 영산강과 황룡강을 낀 전채의 자연환경 탓에 본격 개발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시 부담액 5~6조원은 무난히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기존 부지가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점을 내세워 충분한 개발 이익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새 후보지 선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더위 잊은 섬진강 래프팅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 3일 곡성 섬진강변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역 RCY 회원들이 래프팅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광주 시장청년들 난항 왜	▶6면
추석선물 김영란법 영향은?	▶15면
리우 선수촌 가보나~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